

국제 기업의 정치 리스크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 정 열
(오산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 차 례 ▶

- 제 1 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 제 2 장 연구사
- 제 3 장 정치리스크 평가시스템의 제도화 관련요인
- 제 4 장 실증적 분석
- 제 5 장 결 론

제 1 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기업 국제화의 진전은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체 내·외의 제 환경에 유기적이고 동태적인 적응을 요구함에 따라서 조직의 유효성 내지는 경영성과의 제고를 위한 새로운 경영 마인드와 상황 적합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이 국내의 예측 가능한 안정적 환경을 벗어나 해외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이질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경우 현지국의 환경을 예측·평가·통제하기 위한 관리 및 조직 시스템은 경영 성과와 환경간에 내재하는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 외부의 환경 중에서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 환경은 다른 영역의 환경과는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예측과 평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관한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관리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 리스크는 기업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기대하지 않은 우발적 사건이므로,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이들 환경적 요소가 기업의 정치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측정하여 외부 환경에 적응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의의를 지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 리스크 평가에 관한 문제의 제기와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미국·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조직 내의 정치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는 외부 정치적 환경 요인의 발견과 그러한 요인이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여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정치적 환경 요인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제 2 장 연구사

제 1 절 전략적 측면에서의 연구

기업과 리스크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에는 3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될 수 있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전략적 의사 결정의 과정에서 리스크와 기업의 업적간에 인과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이다.

펠리치(Palich, Leslie Erwin)¹⁾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부서간에 문화적 불균형은 이들 부서간에 전문성과 활동성을 분담하는 데에 장애를 준다고 가정한다. 유형적인 요소(시장, 제품)와 무형적인 요소(일반적으로 경영 관리 기술)의 상호관계 구조는 문화적 차이가 비효율적인 시너지 형성과 활동의 분산을 형성할 때 측정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까닭에 문화적으로 관계된 다국적 기업은 문화적으로 비관계된 기업보다도 더 큰 경쟁적 우위를 획득하며,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으로 관계된 다각화 기업에 더 적은 리스크와 더 큰 업적으로 전이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을 4개의 집단(높은 위험, 낮은 위험, 제품 관계, 문화적 관계)으로 나누어서 위험과 업적을 측정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MANCOVA검정에서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며 기업의 부채가 유의적인 변수이었다.

즉, 높은 부채는 높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을 산출한다. 이러한 결과는 계층적 회귀 분석에서도 제품과 문화적 관계는 리스크와 수익 관련 변수 보다도 통제 변수 즉 부채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설명되어진다.

라도(Lado, Augustine Abulu)²⁾는 해외 전략적 제휴선의 선택에 관한 개념적 모형을 조사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래의 연구가 해외 제휴선의 결정 요인으로서 이전비용과 정치 리스크, 해외 문화적 차이와 같은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지양하여, 미국의 다국적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통합적인 사고의 틀 안에 전략적 제휴의 선택에 대응하는 정치 리스크와 전략적 의도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Palich, Leslie Erwin,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Performance : The Impact of Product and Cultural Relatedness on Risk and Return, Arizona State University (a Doctoral Dissertation), 1992.

2) Lado, Augustine Abulu, Risk and Strategic Intent in Cross-Border Alliance Choi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Memphis State University, 1992, PhD.

즉, 해외 제휴선 선택에 대하여 환경적 결정 요소의 반영과 정치 리스크가 얼마나 커야하며, 해외 제휴선의 선정에 있어서 정치 리스크와 전략적 의도는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Kruskal-Wallis의 분산 분석과 판별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전략적 제휴 형태의 선정에 있어서 전략적 의도와 기술의 반영, 마케팅 공격은 유의적이었으며, 제휴선의 예측에 있어서 전략적 의도와 정치 리스크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지하였다.

부자드(Bussard, David Thomas)³⁾은 업적의 수준이 리스크의 수용 수준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리스크, 기업 업적과 관리 수준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결론은 관리적 태도와, 리스크의 인식은 리스크의 재무적·경제적 인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반면에 업적이 낮은 기업은 리스크를 수용하고, 내부적인 요소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며, 높은 업적의 기업은 리스크를 회피하며, 이러한 리스크의 회피는 외부적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고 한다.

콜린스(Collins, James Michael)⁴⁾은 전략적 리스크의 측정과 새로운 개념화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략적 리스크, 리스크 선호도 그리고 리스크 분산 전략 사이의 실증적 연구를 행하였다.

결과는 각기 다른 리스크 분산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들의 다른 리스크 선호도 수준을 체험했을 지라도 기업 리스크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권구혁(Kwon, Ku-Hyuk)⁵⁾은 리스크와 수익 사이의 역상관 관계가 실제 실무에서는 극복되어진다는 보우만(Bowman)의 연구 결과로 인해, 전략적 경영 연구자들은 리스크만을 연구했는데, 리스크를 정의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약된 기회 프로그래밍(Chance Constrained Programming:CCP)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왈라스(Walls, Michael Roy)⁶⁾은 기업의 업적과 기업의 리스크의 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에 논점을 두고, 기업의 리스크 수용 행동을 잠재 효용 함수의 형태로 포착하여, 할당 리스크와 수익이 포함된 전략적 업적의 차원과 기업의 잠재 효용 함수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석유 탐사 산업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Bussard, David Thomas, Risk, Performance, and Agendas (Cooperate Performa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1, PhD.

4) Collins, James Michel, Strategic Risk : An Ordinal Approach (Risk Measures, Diversific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PhD.

5) Kwon, Ku-Hyuk, Chance Constrained Programming Model and Other Approaches to Risk and Return in Strategic Management (Bowman Paradox),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PhD.

6) Walls, Michael Roy, Ex Ante Risk Propensity and Firm Performance: A Study of the Petroleum Exploration Industry (Risk Management, Exploration Risk),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2, PhD.

제 2 절 해외 투자적 관점에서의 연구

해외 투자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특정의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된 리스크의 현황을 분석하여 해외 투자에 활용하려는 연구이다.

린(Lin Lianlian)⁷⁾은 중국에 있어서 직·간접 투자 리스크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에 관계된 국제 경영에 있어서 외채 리스크, 수용 리스크, 외환 이전 리스크, 통치 리스크를 재무적, 정치적, 법적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1980년서부터 1990년까지의 중국의 외채에 대하여 질량적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고, 현 중국의 정책, 법, 이론, 실재적 측면에서 국유화와 수용에 관한 태도와 적정 보상 정책을 조사하였으며, 케이스 스타디를 통하여 중국에 있어서 외환이전 리스크의 근원을 다루었고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옌(Yen, Jonathan Tsung-Lieh)⁸⁾은 타이완 사기업의 국제적 투자에 관련하여 일부 저개발국의 정치 리스크를 평가하고 추정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 정치적 안정성, 기업 성과에 관한 실증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이들에 관련 요소들을 평가하였다.

타이완 개인 기업의 규모가 크면 해외 직접투자 의사 결정에 고려되는 관련 요인의 수가 증대된다는 가정하에, 리스크의 프리엄은 타이완과 태국에 있어서는 역 상관성이 있고 말레시아의 정치적 안정과는 정 상관적인 관계를 표출하였으며, 필리핀에 투자한 기업은 그들이 예상한 수익보다도 실제적인 수입이 더 낮았다.

그러나 높은 이윤을 올렸던 기업은 태국이나 말레시아의 기업에 비교하여 필리핀에 재투자하거나 이윤을 올린 기업이었으며, 필리핀이나 태국, 말레시아에 투자한 사기업의 실제 이익률과 재투자 이익률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전우찬(Chung, Woo Chan)은⁹⁾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일본 기업들의 직접투자 리스크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 정치,경제에 있어서 리스크 분석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리스크는 (1) 특정 상황에서 특정 기간에 발생하는 리스크 인식과 적절한 평가 (2) 정상적인 경영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모르는 리스크를 다루는 관리 도구나 기법들 (3) 리스크에 대응하는 기업 전략의 개발들이 통합되어질 때 가장 잘 이해되어진다.라는 가정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리스크는 조직과 환경 사이의 상황론적으로 이해되어 지기 때문에 조직이 처해 있는 정치적, 정책적, 경제적, 재무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들에 관해 잘 인지하고

7) Lin, Lianlian, Risk Analysis of International Business With and Within China,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2, PhD.

8) Yen, Jonathan Tsung-Lieh, Political Risk Pertaining to Taiwan Private Foreign Active Direct Investment In Philippines, Thailand, and Malaysia (Private Firm),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1991, PhD.

9) Chung, Woo Chan, The Assesment of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A Risk Perspective in Korea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8, PhD.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은 일본 투자자들에 의해 시장 매력도는 높으나 높은 정치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마키자(Makhija, Mona Verma)¹⁰⁾원유 산업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거의 통제될 시대인 1947~1976년까지 정부 개입의 여러 형태를 알아보고 베네주엘라 원유 산업의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투자 대상국의 정치 리스크의 모형을 전개하였다.

이 모델은 원유 산업에 대한 베네주엘라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정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개입의 형태 사이의 관계를 특정화하고, 정부 개입 형태를 시대적으로 연관시켜, 정부의 개입 목적과 부합된 경영의 환경 그리고 개입 의지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특정 변수들이 베네주엘라 원유 산업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발생과 연관이 있음을 보였고, 개입을 위한 정부의 의사 결정이 산업 정보에 의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진다는 사실에 일관성 있는 증거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제 3 절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

리스크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리스크의 인식과 예측 및 통제에 관련된 연구이다.

루바니(Loubani, Awad M.)¹¹⁾은 리스크 관리자에 의하여 받아 들여지는 기준 적인 리스크 요인을 인식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한 결과 4가지의 주요 연구 결과를 발견하였는데 첫째, 실제적인 리스크의 관리는 기업 문화와 관련이 없고 둘째, 리스크의 보유 구조는 총 부채 계정으로 인식하며, 보험과 같은 방법을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셋째, 중간 관리 계층은 리스크 관리를 싫어하고, 대부분 하위 계층에 업무를 이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넷째, 이들 관리자는 대체로 기업의 리스크를 보험·변수로서 이해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스테레이트(Sterreit Frank W., III)¹²⁾은 실질적 리스크와 인식적 리스크의 차이에서 리스크의 관리가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리스크 관리의 6가지 사례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1) 타이레놀의 제품 소환과 같은 전통적인 리스크의 관리 방법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부적절한 것일까? (2) 인식된 리스크와 실제적인 리스크의 관리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3) 인식된 리스크와 실제적인 리스크에 더 적절한 관리 방법은? (4) 실제적 리스크가 인식된 리스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 등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가 확률적 모형과 수량적인 접근에 집중된 반면에, 낮은 확률

10) Makhija, Mona Verma, The Determina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 Political Risk in The Venezuelan Petroleum Industry,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9, PhD.

11) Loubani, Awad M., Optimum Risk Retention Level : An Empirical Study of Energy Companies Based In Albert University of Calgary (CANADA), 1991, PhD.

12) Sterreit Frank W., III, The Role of Equilibrium in Risk Management : Operational Decisions/Organizational Success, Boston University, 1992, DBA.

적 상황에서 가끔 부적절한 전통적 수량적 접근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매이(May, Robert Emmet)¹³⁾은 높은 기술적 수준을 가진 기업과 낮은 기술적 수준을 가진 기업간에 리스크 다각화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기업 포트폴리오에 고려된 리스크의 정도와 투자안들에 고려된 리스크의 정도 그리고 각 관리자들이 개인적으로 고려하는 리스크간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1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검증 결과 6개의 가설만이 지지되어 졌는데, 1) 고기술 보유 기업의 관리자는 각 투자안에 있어 보다 큰 리스크를 선호한다. 2) 저 기술 보유 기업의 관리자는 이들 기업의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중간 이하라고 생각한다. 3) 고기술 보유 기업의 관리자는 이들 기업의 포트폴리오가 저 기술 보유 회사의 포트폴리오 보다 더 큰 리스크가 포함한다고 생각한다. 4) 고기술 보유 기업들은 저 기술 보유 기업들 보다 더 큰 총 리스크 경향을 나타낸다. 5) 고기술 보유 기업의 관리자들의 예측 리스크는 투자 안들에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그들의 선호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6) 저기술보유 기업의 관리자들의 예측 리스크는 투자 안들의 리스크에 대한 그들의 선호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번즈 (Burns, William J.)¹⁴⁾는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 환경의 제 요소가 어떤 식으로 특정의 사건에 상호 작용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관리자들은 복잡한 경영 전략들 중에서 최선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두 측면에서의 효과 형태 표의 기술적 능력들과 구조적 모델의 기술적 강점을 혼합하므로써 리스크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공분산 구조와 부분 최소 자승 모델로 이론적 구조를 검증하였다.

알렌드 베라(Allende Vera, Baltasar)¹⁵⁾는 정치 리스크 분석을 개념적·방법론적으로 전개하면서 10년 이상의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일반화된 이론이 아직 전개되지 않는 이유는 (1)경영 환경과 같은 주용어의 적절한 정의의 부재, (2)경영학적 측면보다는 정치학적 측면에서 정치 리스크 분석의 접근 (3)제안된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의 부재 (4)경영 의사 결정자가 환경과 같은 비시장적 측면을 평가할 수 있게 하고, 경영 조직의 구성원들의 하부구조를 평가, 업무 배분을 할 수 있게 하며,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키 위해 연구 결과를 통합할 수 있게 해 주는 구조, 방안, 제시의 부재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정치 리스크 평가의 이해를 돕는 방안으로 (1)현존하는 현상태의 평가 (2)경영에 있어서 경영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과 구조 (3)정치학 분야의 기존 연구 논문으로부터, 정치적 분석에 관한 지식과 평가 관리 되어 질 것과 이런 시도를 위해 적용할 수 없는 것에 관한

13) May, Robert Emmet, Diversification Decision - Making and Risk Management By High and Low Technology Executives (High Technology),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1990, PhD.

14) Burns, William J., Introducing Structural Models and Influence Diagram into Risk Perception Research: There Value for theory Construction and Decision-Making, University of Oregon, 1990, PhD.

15) Allende Vera, Baltasar, Political Risk Analysis : So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Advance (Risk Analysi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0, PhD.

이해 (4) 경영의 정치적 측면의 평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제시 (5)정치 리스크의 연구 접근법의 기준 (6)정치 리스크 평가의 문제점에 주된 이유 분석 (7) 관리적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학, 정치학으로부터 얻은 지식의 통합 수단 (8) 정치적 분석가의 평가를 위한 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버니(Berny, Jan)¹⁶⁾는 관리 계획과 통제를 위한 새로운 예측과 리스크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연구의 3가지 범주는 성장곡선 예측, 리스크 분석과 업무 관리의 수치적 기법들의 상호작용으로 구분되었으며, 연구의 결과 새로운 예측 이론이 부정확성이 감소되었으며, 경영에 있어 새로운 예측 기법과 리스크 분석 기법의 결합으로서 새로운 측면에서의 리스크 분석이 시도되었다.

제 3 장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관련 요인

제 1 절 제도화

코블린은 미국의 국제 기업을 대상으로 표적 모집단의 기업은 해외의 정치적인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와 같은 평가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리고 평가된 정치적인 요소가 어떻게 전략적 계획과 투자 의사 결정에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였다.

이의 분석을 위하여 주요한 독립변수는 기업의 규모, 국제화, 조직 구조, 국제 사업 경험, 기술 등이며, 이에 대한 측정 대리 변수로서 총 매출고, 해외 매출액 비율, 진출국수, 국제 관리 조직 형태 등으로 분류하고 종속변수로서는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를 들고 있으며¹⁷⁾, 특히 종속변수로서 제도화란 코블린의 정의에 따르면, 경영 관리 기능의 제도화는 조직의 구성 요소로써 받아들여지는 확립된 비교적 영구적 관계들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화는 (1) 권한과 책임의 명시적 할당 (2) 분석 과정의 공식화 (3) 정보 흐름의 조절 그리고 (4) 통제의 집권화를 의미한다.¹⁸⁾ 또한, 톰프슨(Thompson)은 기업 조직이 당면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조적 단위(structural unit)들을 조직하려고 할 때, 외부 환경적 요인은 보다 전문화된 단위(unit)들을 요구한다¹⁹⁾고하며, Lawrence와 Lorsch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다양성에 조직이 직면할 때, 조직 구조는 보다 세분화되며, 이러한 분화에 비례하여, 통합 작용이 강화되어야 경영 성과에 보다 유효 적이다라고 한다.²⁰⁾

Good & Bazerman은 제도화란 새로운 규범, 가치 그리고 조직 구조 상호간에 외부 환경적 적응을 위하여 통합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통합 작용 과정은 사회적 관계에 안전

16) Berny, Jan, Forecasting and Risk Analysis Applied to Management Planning and Control, Aston University(England), 1988, PhD.

17) Stephan J. Kobrin, Managing Political Ris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18) Stephan J. Kobrin, Managing Political Ris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67.

19) Thompson, James D., Organizations in Action, McGraw-Hill, 1967. p.70.

20) Lawrence Paul and Jay W. Lorsch, op. cit., p.108.

성과 예측 가능성을 더해 주고, 그러한 것은 공식적 조직들의 맥락에서 특히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계획적 변화 노력들을 지속시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코브린이 지적하듯이 정치 리스크 평가 기능의 제도화는 조직의 부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조직적 구조의 성립과 성립된 조직 구조간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 및 통일적인 정보의 흐름 및 업무에 있어서 공식화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정치 리스크 평가 부분이 단지 부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제 2 절 국제화 및 해외 운영 경험

로빈슨(Robinson)은 다국적 기업들의 발전은 자원의 지리적 분산과 기능적 및 조직적 개발의 패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전개되는데, 이는 정치 환경에 의해 초래되는 우발적 사건의 비용과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현지국의 정치적 환경들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들에 더 취약하게 직면하고, 정치 리스크 평가 기능들을 제도화하는 경향이 더 크며, 기업의 국제적 전략의 전개는 조직 구조에 상당한 관련이 있다²¹⁾고 한다.

리차드슨(David J. Richardson)은 기업의 해외 운영의 경험과 회사의 정치 리스크의 지표간의 관계는 해외 지사들이 수립되었을 때 연수의 기간과 그리고 회사가 정치 리스크에 직면한 적이 있었는지에 여부에 의해 측정되는 독립변수들으로써 간주된다. 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을 수록 관련 회사의 경영자가 정치적 환경들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들을 인식할 가능성은 더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팽창의 추세가 아주 가까운 국가들에서 미지의 국가들로 항상 이동한다. 즉 자회사들의 설립이 다국적 기업들과 본사국들간의 거리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해외 운영과 정치 리스크의 풍부한 경험들이 회사에서 정치 리스크 평가 기능의 제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²²⁾

제 3 절 기업 규모

기존의 연구들이 규모와 조직 분화간의 정적 관계를 유지한다고²³⁾ 하며, 증가하는 규모는 기능의 전문화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또한 제임스(Barrie James)는 국제 기업은 국내외의 이질적이고 동태적인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고,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의사 결정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적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국내 기업 보다는 정치 리스크에 노출되기 쉽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또는 국제화 경험의 정도가 누적됨에 따라서 정치 리스크에 작용하는 강도가 증대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²⁴⁾

21) Robinson, S.J.Q., R.E. Hichens and D.P.Wade op. cit., pp. 112-114

22) David Richards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Analysi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Western Economic Journal, March 1971, pp. 87-98.

23) Aldrich, Howard E.,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Prentice-Hall, 1979, pp. 127-129.

이와는 반대로 기디와 영 (I.H.Giddy & S. Young)은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자본적, 기술적인 우위 하에서 제품의 차별화를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의 규모에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정치 리스크의 강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²⁵⁾

제 4 절 최고 경영진의 인식

엔델슨(Carl R. Anderson)은 최고 경영자가 정치 리스크 평가 기능에 관한 지각을 독립변수로 간주하는데 이 변수는 최고 경영진의 정치 리스크에 대한 지각과 회사의 조직 행동간의 관계에 관하여 정치 리스크 평가 기능이 제도화된 회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환경 변화와 조직적 대응간에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회사의 내부 상태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최고 경영진의 지각적 측면들을 검사해야 하며, 환경 불확실 등의 지각에 따라서, 경영자는 여러 우발적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 선택들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자유재량을 가진다고 한다.²⁶⁾

따라서 환경 불확실성의 특징보다는 오히려 환경 불확실성에 관한 경영자의 지각이 중요하며 전략적 공식화 과정에서 고려되는 본질적 특성의 하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또한 칠드(J. Child)는 경영자의 지각과 행동은 조직의 특정 환경에 대한 반응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²⁷⁾

제 5 절 산업적 특성

기업의 산업적 특성은 구조는 회사에서 정치 리스크 평가 기능의 제도화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예컨대, 석유, 광산 그리고 금속과 같은 산업에서 다국적 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들보다 정치 리스크에 더 쉽게 직면하는 경향이 있다. 기간산업들에의 투자는 많은 개발도상국 경제들에의 그 지배적 역할 때문에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²⁸⁾

트루이트(J.F. Truitt)는 정치 리스크의 한 요인인 수용에 영향을 주는 기업적 특성으로서 첫째, 경영상이나 기술상의 독특한 노하우의 보유 정도, 둘째, 서비스나 유통산업에 종사할 경우 셋째, 현지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 넷째, 현지 국에서의 고용 효과 등을 지적하고 있다.²⁹⁾ 정치 리스크의 일반적 발생 원인에 대해 로벅은 피 투자국의 정치적 이념이 외국 기업

24) Barrie James, Reducing the Risk of Glottalization, Long Rang Planning, Vol.23, No1. 1990, pp.80-88.

25) I.H. Giddy & S. Young,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 Do New Form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Require New Theory ?, Croom Helm, 1982, pp.55-75.

26) Carl R. Anderson, and Frank T. Paine, Managerial Perceptions and Strategic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18, 1975, p.11.

27) J.Child, Organization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Sociology, Vol.6, 1972, pp.1-22.

28) Stephen J. Kobrin, op. cit., pp. 73-74.

본사국의 정치적 이념과 상반되는 경우, 피 투자 국내에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이 존재하는 경우,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피투자국이 정치적 독립을 최근에 하였거나, 임박한 경우, 피투자국내에 정치권력의 쟁취를 위한 무력 충돌이나 내란이 발생할 때, 새로운 국제 동맹이 형성될 때 등의 6가지를 들고 있다.³⁰⁾ 루트(Franklin R.Root)에 따르면 투자 모기업과 해외 투자 기업이 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치 리스크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는 해외 투자 사업이 하나의 생산 단위가 되는 경우에는 물론이나 수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만, 단순한 부분품의 생산과 현지에서의 조립 생산에 관계하는 경우 정치 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적기 때문이다.³¹⁾

로보크와 케네스(Robock, Stepan H. & Simmonds Kenneth)에 따르면 미시 정치 리스크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 또는 그 산업이 사용하는 기술 수준이 낮은 경우, 현지 기업들과의 경합이 있는 경우, 석유나 광물 등 현지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현지국 국제 수지에 대한 기여가 미미한 경우, 현지국의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필수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현지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할 경우, 본사국(home country)정부의 지원이 약할 경우 등에 있어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을 토대로, 자료의 획득성과 변수의 측정 가능성 및 본 조사 연구의 목적에 적합성 유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국적 기업의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이에 영향하는 요인과의 관계를 모델화하고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좀 더 구체적인 모델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INS = f(INT, SIZ, OPE, PER, IND)$$

- 즉, INS :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 INT : 국제화 정도
- SIZ : 기업의 규모
- OPE : 해외 운영 경험
- PER : 최고 경영층의 지각
- IND : 산업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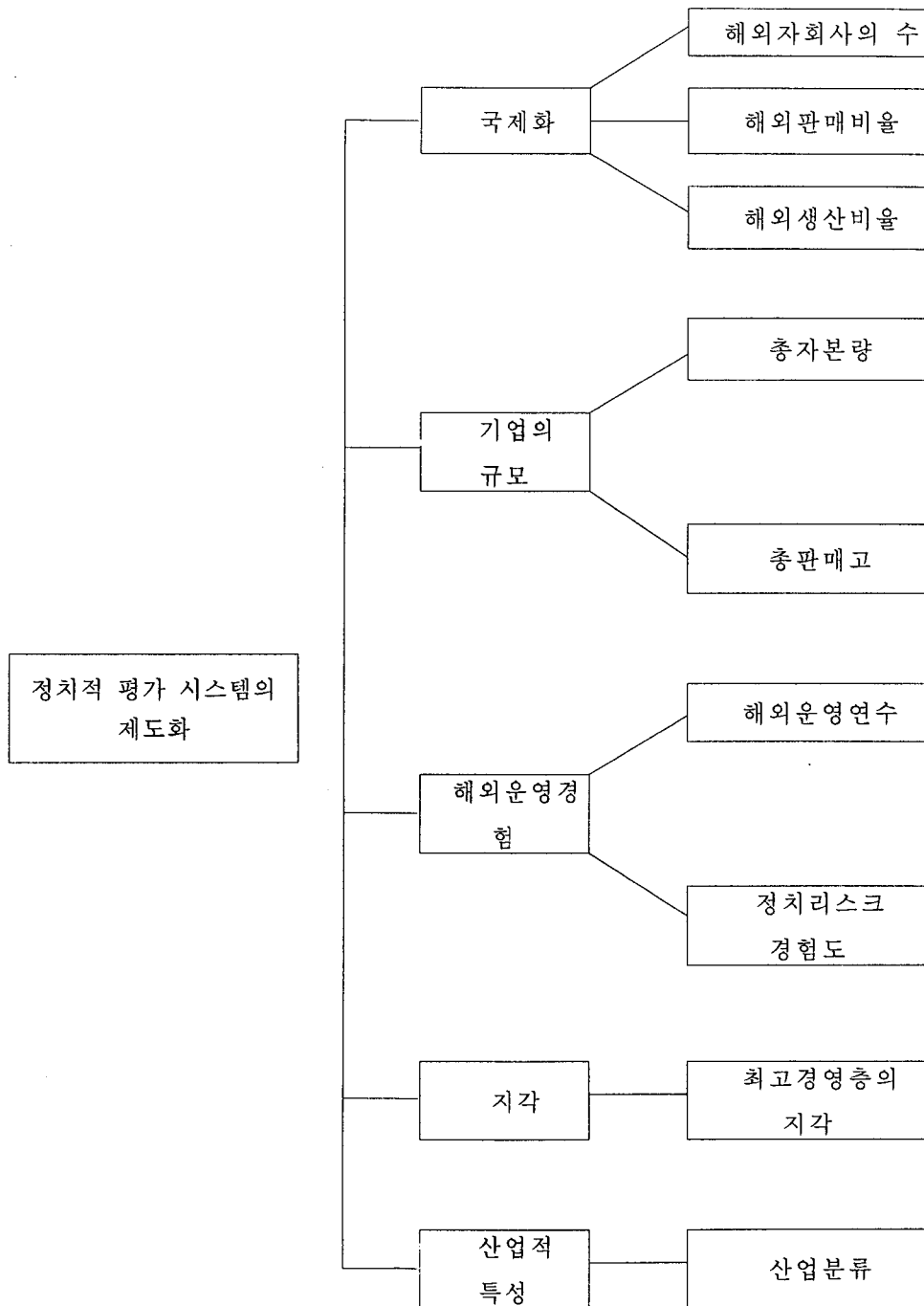
29) J. F. Tuit, Expropriat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dian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69, pp.229-239

30) Robock, S.and Simmond,K.,op.cit.,p.346-350

31) Franklin R. Root, Environmental Risks and the Bargaining Power of Multinational Cooperation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1988, Vol13(1) pp.354-365.

32) Robock,Stefan H.and Simmonds Kenneth;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 Homewood, Ill, R.D.Irwin Inc., 1983, p344

[표 1] 이론적 모델



제 4 장 실증적 분석

제 1 절 연구 가설의 설정 및 조작적 정의

1. 연구가설의 설정

1) 국제화 관련 가설

가설 1-1 : 해외자회사의 수와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1-2 : 해외 판매비율과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1-3 : 해외 생산 비율과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그에 따른 조직의 변화가 발생한다.³³⁾

코브린에 따르면 국제화는 해외에서의 유형적 확대뿐만 아니라, 활동의 조정, 합리화, 그리고 통제와 집권화 등 전략적 진화를 반영하며, 경영자들은 국제화가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서, 정치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이에 따라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가 촉진된다고 한다. 또한, 국제화의 확대는 관련 다국적 기업들의 정치 리스크를 증대시킨다고 한다.³⁴⁾

2) 규모 관련 가설

가설 2-1 : 기업의 총자본량과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2-2 : 기업의 총판매량과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알드리치(Aldrich Howard E)는 조직 규모가 큰 기업은 그 기능적 구조가 다양화 내지는 분화되고 이러한 분화 과정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며³⁵⁾

그리너(Grinyer, P. H.)와 야사이 알데카니(Yasai-Ardekani M)는 규모 및 다각화 전략과 조직 구조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고, 회사 규모가 전략-구조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3) Stopford, John M., Louis T. Wells, Jr., Managi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Basic Books, 1982, pp. 128-179.

34) Stephen J. Kobrin, op. cit., pp.73-74.

35) Aldrich, Howard E,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Prentice-Hall, 1979, pp.111-114.

3) 해외 운영 경험 관련 가설

가설 3-1 : 해외 참여의 연수와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간에 정의 관계가 있다.

3-2 : 정치 리스크 경험도와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간에 정의 관계가 있다.

최계봉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 경험의 정도간에는 정의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며, 코브린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운영 경험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국제화의 독립 변수로써 회사가 운영되는 국가들의 수와 해외에서 발생된 메상고의 비율과 종속 변수에서 정치 리스크 평가 기능의 제도화간의 관계에 대하여만 분석했다고 하며,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다국적 기업의 해외 운영 경험간에는 강한 정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³⁶⁾

또한, 해외에서 확대의 패턴은 항상 가까운 국가들에서 미지의 국가들로 이동한다고 하며, 경험을 얻음에 따라, 보다 멀리 있는 환경들에서 운영체를 설립한다³⁷⁾.

4) 최고 경영진의 지각 가설

가설 4-1 :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최고 경영진의 지각간에는 정의관계가 존재한다.

최고 경영진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며, 정치 리스크의 경험에 의하여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의 필요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다. 따라서 최고 경영진의 지각과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간에는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5) 산업적 속성 가설

가설 5-1 :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산업적 속성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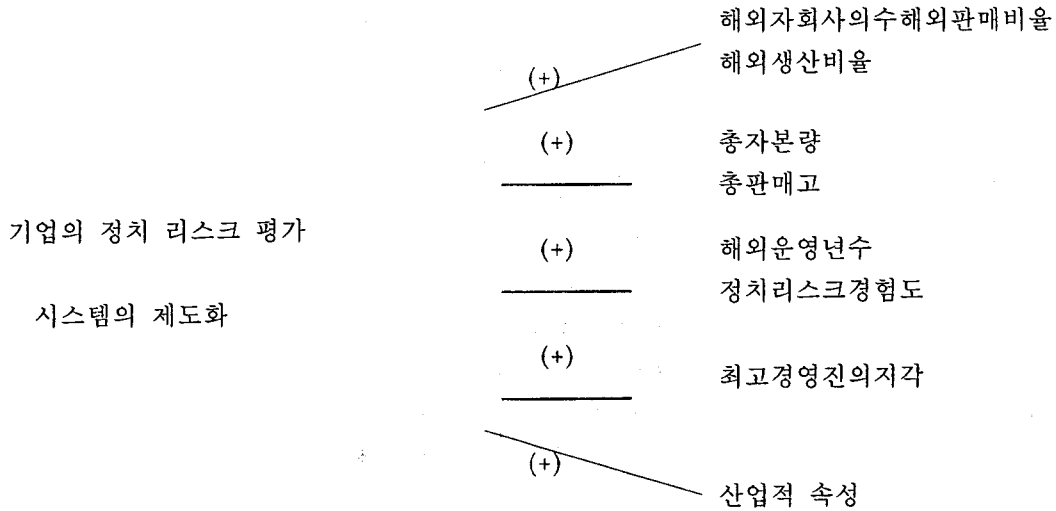
조직적 및 환경적 특성에 관해 산업들 간에 중요한 차이들을 언급한 다수의 문헌이 있는데(Bain 1959, Berle & Means 1972 ; Levine & White 1961 ; Bill 1958; Thompson 1967 ; Emery & Trist 1965) 이들 문헌에 따르면 기업의 각 조직은 외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의 정도는 산업적 속성에 의하여 각기 차이가 나는데 즉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기업일수록 정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줄어들어서, 정치적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소비재 산업이나 기술적 노하우가 적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36) Gai Bong Choi, op. cit., pp. 128-129.

37) Richardson, J. David, op. cit., pp. 204

[표 2] 가설된 관계의 도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 변수(Pi)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로 선정된 제도화는 정치 리스크 평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조직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진 시스템을 의미한다. 첫째, 정치 리스크 평가 업무의 전문화로서 여기에서 전문화란 기능, 역할, 혹은 직위의 분화를 의미한다. 기업은 정치 분석 기능을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과업(task)으로써 인식하고, 정치 분석의 책임과 권한 관계가 명확한 식별 가능한 직위나 조직 단위(unit)가 존재하여야만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둘째, 정치 리스크 분석 과정의 공식화로서 목적, 수단이 어느 정도 기대대로 되어 있는가와 관계가 있다. 만일 정치 분석 기능이 공식화되고 있다면 투자 안건의 제안에 따라서 정치 평가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정의 양식이 없으면 안되고, 평가를 위한 표준적인 분석 방법의 루틴(routine)화가 되어야 한다.

셋째, 정치 리스크 분석의 각 단위간에 업무와 정보의 흐름적 측면에서의 통제 기능이 집권화 내지는 통합화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면 1, 아니면 0으로 응답하게 하여 처리하였다.

2) 독립변수(Xj)의 조작적 정의

(1) 국제화

국제화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해외 법인의 수(X1),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해외 판매액의 비율(X2) 및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해외 생산액의 비율(X3)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측정

된다.

기업의 국제적인 확대는 정치 환경의 다양성과 동태적인 가변성에 기인한 조직의 복잡성과 가변성을 증가시켜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기업의 해외 사업의 비율이 높아지고, 활동하는 국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해외의 정치 환경에서 생기는 우발적 사건이 증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취약성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 분석 기능을 제도화하는 경향도 커지게 된다. 그와 같은 우발적 사건은 기업이 집권적 통제를 행하고, 전략을 통일화하고 국경을 초월한 사업 활동의 통합을 피할 때, 다시 말하면, 세계적 자원을 이동하고, 배분하고, 공통의 전략에 의해 시스템 전체의 목적을 추구할 때, 기업의 국제적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중요해진다.

(2) 규모

조직의 규모는, 기업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조직 규모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유효 시장의 발견을 위하여 축적된 자원이 외부적으로 이동되기 시작하며, 이는 새로운 환경과의 접촉이라는 측면에서 정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 될수록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가 더욱더 강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 규모는 기업의 총자산(X4)과 총매출액(X5)을 측정하였다.

(3) 국제 사업 경험

정치 리스크 평가의 시스템의 제도화는 기업의 국제 경험의 정도에 상관 관계가 있다. 기업의 국제 무대에서의 활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 환경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을 경영자가 지각할 가능성은 강해진다.

또 현실적으로, 해외 진출의 패턴이 통상, 가까운 국가에서 미지의 국가로의 순으로 넓혀 간다 즉, 최초의 해외 자회사는 지리적 또는 문화적 쌍방에 있어서 본국에서 밀접한 국가가 후보에 오른다. 그런 다음, 경험을 쌓음에 따라서, 보다 먼 환경에서도 사업 활동을 개시한다. 해외 경험을 쌓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경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업은 정치가 초래하는 우발적 사건이 문제인 것을 지각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 해외 사업 연수(X6)경영자의 정치적 평가에 관한 인식의 유무(X7)를 변수로 측정하였다.

(4) 산업적 속성

정치 리스크 평가의 제도화는 산업 부문과 기술이라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한 요인에도 좌우된다. 예컨대, 자원 개발 부문의 회사는 정치 환경이 사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에 있어서 사활적 역할을 걸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는 특히 정치 리스크에 대해 민감해지고, 평가 기능을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나오는 적이 많다.

기술의 성숙도 및 집약성도 평가 기능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국 측은, 첨단적, 집약적이고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을 가진 산업을 가치가 높은 자원을 이전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특히 그 기술이 필수적이고, 다른 데로부터는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의 교섭력은 강해진다.

컴퓨터라든지 고도 기술 산업은 기술이 성숙화하여 기술적 입수가 손쉬운 기업에 비해 정치에 의한 우발성에 대한 취약성이 적다. 수입국측이 구하는 경영 자원과 다른 자원에서 입

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보아서, 현지국 경제에의 공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자의 기업은 최소한도의 교섭력 밖에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는 기술이 낮은 산업에서 더 잘 조직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업적 속성은 종업원1인당 자본장비율로서(X8)측정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 측정 대리 변수와 측정단위의 요약

변 수	측정대리변수	측 정
종속 변수(Pj) 1. 정치리스크 평가 기능의 제도화	정치리스크 평가 시스템이 재도화 되어 있거나 되어있지 않다.	범주화 변수 (0, 1)
독립변수(Xi) 1. 국제화	(1) 해외 자회사들의 수 (2) 해외판매/총 판매액 (3) 해외생산/ 총 생산	운영법인의 수 비율(%) 비율(%)
2. 규 모	(1) 총 자본금 (2) 총 판매액	억원 억원
3. 해외투자의 경험	(1) 해외 투자경험년수 (2) 정치적 리스크들의 경험	운영년수 5점 척도
4. 최고 경영진의 정치 리스크 평가기능에 대한 지각	(1) 정치 리스크평가에 인식	범주화변수
5. 산업적 속성	(1)총자본금/총 종업원수	비율(%)

제 2 절 자료의 수집

1. 표본 및 자료의 구성

본 연구에 있어서 표본 공간은 한국 기업과 미국 및 일본 기업 전체에서, 한국 기업은 상장 기업 중 해외에서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기업 490개와 미국 기업의 경우 한국에 진출한 100% 단독 법인 중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 가입한 108개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우 한국에 100% 단독 법인과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서울 일

본인 상공인회에 가입한 138개 기업등 총 736개 기업이다.

이들 표본 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 6월부터 7월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에 의한 전수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한국 기업으로부터 72개 기업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미국 기업은 52개, 일본 기업은 65개의 설문지 등 총 189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관련된 2차적인 자료는 이들 설문에 응답한 기업에 한하여 관련 회계적 정보를 기업 연감과 경제지 등에 의하여 조사되었다.

2.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특성은 (표 4)과같이 우선 업종에 있어서 한국 기업은 제조, 건설, 무역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미국 기업은 제조, 의료, 유통, 화학, 통신 등 고도 정밀 산업 분야의 업체가 주를 이루고, 일본 기업의 경우 제조, 무역, 유통, 섬유 등 서비스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모기업의 자본금 규모를 살펴보면, 표본으로 선정된 한국 기업은 자본금 규모가 5000억원 이하 경우가 56개 기업이고,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2조원 이상이 각기 20개와 26개 기업으로서 한국의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 면에서 열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도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 표본의 제도화 구성률은 각각 0.6, 0.85, 1.09로 조사 대상 전체의 0.81에 비교하면, 한국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 응답자의 직위를 살펴보면,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실무자가 주를 이루며, 미국 기업의 경우 중간 관리층 이상이 26명이나 응답하였다.

제 3 절 제도화 영향 요인의 분석

1. 조사 대상 전체에 사용된 기술 통계량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사 대상 한국·미국·일본 기업 전체의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에 따르면, 제도화된 기업의 평균 자회사수는 72개정도이고 해외 판매 비율과 생산 비율은 평균 37%와 29%정도이며, 평균적인 총자본금과 총판매액은 2조 6천억원과 23조 6천억원이다. 이에 반하여 제도화가 안된 기업의 평균 자회사 수는 13개이고 해외 판매 비율과 생산 비율의 평균은 각각 0.21%와 0.12%이며, 총자본금과 총판매액의 평균은 1조 4천억원과 4조 2천억원으로 나타나 제도화된 기업일수록 국제화의 정도와 기업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 투자 연수와 정치 리스크의 경험도 및 경영자의 인식도 제도화된 기업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표본의 특성

항목 국가	배 포 수	표 본 량	회 수 율	제 도 화	업종별구분				총 자 본 금 (억 원)	빈 도	응 답 자 직 위	빈 도
					업 종	빈 도	업 종	빈 도				
한국	490	72	0.15	27 (있음)	건설	9	조선	2	999이하	26	부장 이상	8
				45 (없음)	제조	20	주류	1				
					섬유	4	자동차	3	5000-9999	4		
				유통	3	화학	1	10000-14999				
철강	1	기계	1	15000-19999	1							
운송	2	피혁	1					20000이상	1	0	실무	42
무역	8	의료	1									
전자	4	기타	17									
미국	108	52	0.48	24 (있음)	제조	8	화학					
				28 (없음)	섬유	2	유통	5	1000-4999	9	중간 관리 자	13
					무역	1	방위	2				
				전자	3	통신	4	10000-14999	7			
의료	7	서버	1	15000-19999	3							
제약	4	스	13					20000이상	20		실무	13
기타	13	기타	13									
일본	138	65	0.47					34 (있음)	건설	6	무역	10
				31 (없음)	제조	10	기계	2	1000-4999	14	중간 관리 자	21
					섬유	7	비철	2				
				유통	10	전자	2	10000-14999	9			
철강	4	식품	3	15000-19999	4							
운송	2	기타	11					20000이상	26		실무	30
전체	736	189	0.25	85 (있음)	건설	15	기계					
				104 (없음)	제조	38	비철	4	1000-4999	53	중간 관리 자	56
					섬유	13	유통	2				
				유통	8	자동차	3	10000-14999	27			
철강	5	방위	2	15000-19999	8							
운송	4	통신	4					20000이상	46		실무	85
무역	19	식품	3									
전자	9	기타	41									

[표 5] 조사 대상 전체의 기술 통계량(단위:%,개,억원)

변수	제도화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회사수	0	72.49	51.64	1	250
	1	13.92	14.17	0	98
	소계	41.02	46.81	0	250
해외판매비율	0	0.37	0.24	0	0.88
	1	0.21	0.20	0	0.87
	소계	0.28	0.23	0	0.88
해외생산비율	0	0.29	0.25	0	0.97
	1	0.12	0.18	0	0.9
	소계	0.2	0.23	0	0.97
총자본금	0	26005	38253	43	278336
	1	14679	34567	21	206592
	소계	19920	36660	21	278336
총판매액	0	236425	487144	1060	2059596
	1	42646	99931	145	676815
	소계	132321	351941	145	2059596
해외투자경험년수	0	25.79	12.11	0	57
	1	16.10	12.02	0	52
	소계	20.59	12.97	0	57
정치리스크경험	0	2.74	1.10	0	4.9
	1	2.05	1.09	0	4.7
	소계	2.37	1.15	0	4.9
경영진의인식	0	0.87	0.33	0	1
	1	0.44	0.49	0	1
	소계	0.63	0.48	0	1
업종	0	1.98	2.11	0.03	9.21
	1	1.85	2.70	0.02	17.2
	소계	1.91	2.44	0.02	17.2

○참고 : 0은 제도화된 기업, 1은 제도화 안된 기업

2. 조사 대상 전체의 제도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이론적인 모델을 추정함에는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의 경우에서와 같이 종속변수가 연속적일 경우에는 계량경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중회귀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형태를 중심으로한 연구에서 예를 들어 현지 조사 자료(survey data)를 이용한 선거 참여의 의사 결정의 문제에서처럼 유권자가 투표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와 같이 종속변수가 2분형(dichotomous)인 경우로서 이에 영향하는 요인의 영향력 측정의 경우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선형 회귀식에 의한 분석이 곤란하므로 자료의 변환(monotonic transformation)과정을 거쳐 이들의 관계를 누적 확률 함수(cumulative probability function)의 형태로 나타내어 분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누적 확률 함수는 정규 분포(normal)또는 로지스틱(Logistic)누적 확률 함수를 들 수 있는데 로지스틱 함수는 함수의 형태에 있어서 정규 분포 함수와 흡사한 반면 계산이 용이하여 로지스틱 함수가 선호되고 있고, Logit 함수 모델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선형 회귀식은 회귀 계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나 Logit회귀식은 선형 관계를 지니지 않고, 확률 P_i 는 $0 \leq P_i \leq 1$ 의 값을 가지며, 회귀 계수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다르다. 즉 다중 회귀 선형식에서 각 회귀 계수는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량에 대한 종속변수의 영향으로 해석되나 Logit모델에서 회귀 계수는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량에 대한 지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Logit모델은 페들과 저스트(G. Feder & J. Richard)³⁸⁾ 클라인(William R. Cline)³⁹⁾ 코블린(Stephan J. Kobrin), 보이야시질레(Nakiye Boyacigiller)⁴⁰⁾, 최 계봉⁴¹⁾등에 의하여 정치 리스크 및 컨트리 리스크의 분석을 위하여 Logit모델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로지트 함수모델식은 (표 6)와 같다.

[표 6] Logit 모델의 기본식

$$P_i = F(Z_i) = \frac{1}{1 + e^{-Z_i}} = \frac{1}{1 + e^{-(a + \beta_1 X_i)}}$$

$$\text{또는, } \ln \frac{p}{1-p} = a + b_1 X_1 + b_2 X_2 + b_3 X_3 + \dots + b_j X_j$$

38) G. Feder & J. Richard, A Study of Debt Servicing Capacity Applying Logit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4, 1977. pp.25-37.
 39) William R. Cline, International Debt: Systemic Risk and Policy Response,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4.
 40) Nakiye Boyacigiller, The Role of Expatriates in the Management of the Interdependence, Complexity and Risk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Third Quarter 1990,
 41) Choi, Gai Bong, op. cit.

여기서 P_i : 주어진 조건하에서 정치 리스크 평가 제도화가 되어 있을 확률

X_j : 주어진 조건으로서 정치 리스크 평가의 영향 요인

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정치 리스크 평가의 제도화에 관계된 요인은 무엇이며 이들의 요인이 기업의 정치 리스크 평가의 제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정치 리스크 영향 요인을 추정함에 있어 조사 대상 기업의 성격상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국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계된 요인과 이들의 영향력 및 확률 함수를 추정하였다.

(표 7)에서 Concordant는 예측의 확률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또한

$$X^2 = (\text{추정치 } \beta_j)^2 / (\beta_j \text{의 분산})$$

과 일치하기 때문에 일반우도비 검정에 따른 X^2 통계량

$$T_j = 2 \max_{\beta} [\log L(\beta_0, \dots, \beta_{j-1}, \beta_j, \beta_{j+1}, \dots, \beta_p)] \\ - 2 \max_{\beta} [\log L(\beta_0, \dots, \beta_{j-1}, 0, \beta_{j+1}, \dots, \beta_p)]$$

과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SAS의 수행 결과 2배의 최대로그우도값이 나오므로 공변량 $X_1 \dots X_j \dots X_p$ 가 포함된 1차모형과 이모형에서 X_j 를 제거한 축소모형의 최대우도 추정의 결과로부터 T_j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2 \log \text{likelihood}$ 는 원모형과 축소 모델의 차가 바로 제외된 독립변수들의 카이제곱 기여량이라고 할수있다.⁴²⁾

한편, 원모형과 축소 모형과의 비교에 관하여는 여러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의 설정이 가능하지만은 양 모형의 비교를 위하여 아카이케의 정보량 기준(Akaike's Information Creterion)에 따르면, 2배의 최대로그우도값의 차이를 A라하고, B는

$$B = (\text{원모형에서의 모수의 개수} - \text{축소모형에서의 모수의 개수}) \times 2$$

라할때, $A < B$ 일 경우에 한하여 축소 모형이 원 모형보다 선호된다.

한편,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로짓(Logit)모형을 살펴보면 (표 7)와 같다.

조사 대상 전체의 로지트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보면 원모형이나 축소모형 모두 자유도 9와 7에서 p의 값이 모두 0.0001로서 이때의 카이자승치가 각각 69.16과 68.16으로서 두 모형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원모형과 축소모형의 선택에 있어서도 아카이케의 정보량의 기준이 $A < B$ 일 이므로 축소 모형이 원 모형보다 선호된다. 한편 모형의 예측률을 나타

42)허명희, SAS법주형 데이터분석, 자유아카데미, 1991, pp.22-34.

내는 Concordant는 83.9%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사 대상 전체의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와 독립 변수간의 관계 모형식은 자회사의 수와 해외 판매량비율, 해외 생산비율, 총 매출액, 정치리스크 경험, 경영자의 인식, 산업적 속성 등의 요인이 정치 리스크의 평가 시스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해외 생산비율과 제도화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가설이 기각되고, 해외 운영 연수와 총 자본금에 관련된 가설도 역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기각이 된다. 따라서 조사 대상 전체에 있어서 추정 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제도화} = & -4.3706 + 0.9097(\text{자회사의 수}) + 0.0909(\text{해외 판매량비율}) \\ & + 0.2582(\text{총매출액}) + 0.2046(\text{정치리스크 경험}) \\ & + 0.8863(\text{경영자의 인식}) + 0.1464(\text{산업적 속성}) - 0.1789(\text{해외 생산비율}) \end{aligned}$$

이러한 추정 모델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한 코브린의 연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코브린은 해외 판매량의 비율만이 정의 관계이고 그 외의 자회사 수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조사 대상 전체 기업의 제도화 영향 요인의 추정

독립변수	원모델 회귀계수	축소모델 회귀계수
상수	-4.2781 (23.70)	-4.3706 (24.92)
해외 자회사의 수 X1	0.9643* (11.12)	0.9097* (10.46)
해외 판매량 비 X2	0.0962* (1.26)	0.0909* (1.14)
해외 생산비 X3	-0.1659* (2.19)	-0.1789* (2.60)
총자본금 X4	-0.2085 (0.39)	
총매출액 X5	0.3715* (1.04)	0.2582** (0.59)
해외 운영 연수 X6	-0.1251** (0.54)	
정치적 리스크 경험 X7	0.2251* (1.82)	0.2046* (1.54)

경영자의 인식 X8	0.9611* (3.97)	0.8863* (3.57)
산업적 속성 X9	0.1831* (1.72)	0.1464* (1.22)

-2 Logl	261.5625	260.35
	df=9	df=7
	X ² =69.16	X ² = 68.16
	p =0.0001	p=0.0001
Akaike's Criterion	A	< B
Concordant	83.9%	83.8%

* 1% 유의 수준 ** 5% 유의 수준 ()안은 Chi-Square값

3. 각국 기업의 제도화 영향 분석

1) 한국 기업의 제도화 영향 요인

한국 기업의 정치 리스크의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 확률 모델에서 아카이케이의 정보량 기준이 A<B이므로 축소 모형이 선호되고, 축소 모형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원모형이나 축소 모형 모두 자유도 9 와 6에서 p값이 0.0001이고 카이자승치가 각각 41.362와 41.290으로 매우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기업의 제도화에 중요하게 인식되는 제도화의 관련 변수로서는 해외 자회사의 수, 해외 생산비, 총자본금, 총매출액, 경영자의 인식 및 산업적 특성이 관련 변수로서 나타났다. 그 외의 해외 판매량비, 해외 운영 연수, 정치 리스크 경험 등의 관련 가설은 기각된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의 정도를 (표 8)에서 보는바와 같다.

$$\begin{aligned} \text{제도화} = & -7.4083+2.4906(\text{자회사 수})+0.2822(\text{해외 생산비})+ 1.7140(\text{총매출액}) \\ & + 1.6178 (\text{경영자의 인식})+0.4008(\text{산업적 특성}) -0.9647(\text{총자본금}) \end{aligned}$$

[표 8] 한국 기업의 제도화 영향 요인의 추정

독립변수	원모델 회귀계수	축소모델 회귀계수
상수	-7.2598 (6.96)	-7.4083 (8.12)
해외 자회사의 수 X1	2.5640* (3.53)	2.4906* (3.78)
해외 판매량 비 X2	-0.0270** (0.01)	
해외 생산비 X3	0.3499* (0.56)	0.2822** (0.47)
총자본금 X4	-0.9719* (0.94)	-0.9647* (0.95)
총매출액 X5	1.7536* (2.17)	1.7140* (2.09)
해외 운영 연수 X6	-0.1661 (0.1)	
정치적 리스크 경험 X7	-0.0366 (0.01)	
경영자의 인식 X8	1.7323* (3.16)	1.6178* (3.22)
산업적 속성 X9	0.3806** (0.75)	0.4008* (0.83)

-2 Logl	95.599	95.599
	df=9	df=6
	X ² =41.362	X ² = 41.2905
	p =0.0001	p=0.0001
Akaikes's Criterion	A	< B
Concordant	88.9%	83.8%

* 1% 유의 수준 ** 5% 유의 수준 ()안은 Chi-Square값

2) 미국 기업의 제도화 영향 분석

미국 기업의 추정 모델에서 아카이케이의 정보량 기준이 $A < B$ 이므로 원모형보다는 축소 모형이 선호되고, 축소 모형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P의 값이 0.0001에서, 자유도가 6의 카이 제곱값이 22.9173으로서 매우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에서 미국 기업들이 제도화에 중요하게 인식되는 제도화의 변수로서는 해외 자회사의 수, 해외 생산비, 총매출액, 해외 운영 연수, 경영자의 인식, 산업적 속성 등이 관련 변수로서 나타났고 이중에서 해외 판매량 및 총자본금, 정치 리스크 경험과 제도화에 관련되는 가설도 유의적이질 못하여 기각된다. 이들 변수의 영향력의 정도를 평가하면 다음의 식과 같다.

$$\text{제도화} = -5.7698 + 1.7010(\text{해외 자회사의 수}) + 0.3413(\text{해외 운영 연수}) + 1.6178(\text{경영자의 인식}) + 0.4008(\text{산업적 특성}) - 0.1483(\text{해외 생산비}) - 0.9189(\text{총 매출액})$$

[표 9] 미국 기업의 제도화 영향 요인의 추정

독립변수	원모델 회귀계수	축소모델 회귀계수
상수	-5.9778 (7.36)	-5.7698 (7.92)
해외 자회사의 수 X1	1.9146* (8.09)	1.7010* (9.27)
해외 판매량 비 X2	-0.1508*** (0.54)	
해외 생산비 X3	-0.1799** (0.62)	-0.1483*** (0.49)
총자본금 X4	0.2880 (0.08)	
총매출액 X5	-1.1559* (1.35)	-0.9189* (1.18)
해외 운영 연수 X6	0.4050** (0.64)	0.3413** (0.91)
정치적 리스크 경험 X7	-0.0283 (0.005)	
경영자의 인식 X8	1.4312** (0.75)	1.6178*** (0.62)
산업적 속성 X9	0.6085* (2.25)	0.4008* (2.76)

-2 Logl	72.785		71.828
	df=9		df=6
	X ² =23.201		X ² = 22.9173
	p =0.0001		p=0.0001
Akaikes's Criterion	A	<	B
Concordant	87.4%		86.8%

* 1% 유의 수준 ** 5% 유의 수준 ()안은 Chi-Square값

3)일본 기업의 제도화 요인

일본 기업의 제도화 추정 모델에서 아카이케이의 정보량 기준이 A<B 이므로 원모형보다는 축소 모형이 선호되고, 축소 모형에서 모델의 적합도는 P의 값이 0.0001이고, 자유도 4에 있어서 카이제곱값 21.74이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모형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0)에서 살펴보면, 일본 기업의 제도화 요인을 살펴보면, 해외 자회사 수와 해외 판매량의 비·해외 생산비·산업적 속성이 유의 적인 요인이고, 그 외의 총자본금, 총매출액, 해외 운영 연수, 정치 리스크 경험, 경영자의 인식과 관련된 가설은 기각이 된다.

한편, 일본 기업의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련된 요인의 추정 함수는 다음과 같다.

$$\text{제도화} = -7.1001 + 3.8101(\text{자회사의 수}) + 0.4146(\text{해외 판매량비}) - 0.3340(\text{해외 생산비}) - 0.1884(\text{산업적 특성})$$

(표 10)일본 기업의 제도화 영향 요인의 추정

독립변수	원모델 회귀계수	축소모델 회귀계수
상수	-8.0485 (5.30)	-7.1001 (5.12)
해외 자회사의 수 X1	3.5396* (5.42)	3.8101* (6.65)
해외 판매량 비 X2	0.3750* (1.64)	0.4146 * (2.19)
해외 생산비 X3	-0.3423* (2.11)	-0.3340* (2.39)
총자본금 X4	0.3627 (0.32)	

총매출액 X5	0.1070 (0.02)	
해외 운영 연수 X6	0.0676 (0.04)	
정치적 리스크 경험 X7	0.1574 (0.17)	
경영자의 인식 X8	0.0662 (0.005)	
산업적 속성 X9	-0.2527** (0.77)	-0.1884** (0.60)

-2 Logl	89.9 df=9 X ² =21.88 p =0.0001	<	89.93 df=4 X ² = 21.74 p=0.0001
Akaike's Criterion	A	<	B
Concordant	85.9%		84.6%

* 1% 유의 수준 ** 5% 유의 수준 ()안은 Chi-Square값

4. 분석의 결과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관하여 한국, 미국, 일본 기업에 대하여 그 영향 요인에 관한 분석의 결과는 (표 11)와 같고, 여기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이 규명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국 기업에서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형성에 공통적인 작용을 하는 요인은 해외 진출된 자회사의 수와 해외 생산 비율 및 산업적 속성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인식과 총매출액이 제도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일본 기업은 각각 해외 운영 연수와 해외 판매량에 따라서 제도화를 형성하는데 반하여 한국 기업은 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제도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 각국간 제도화 영향 요인의 비교

독립변수	조사대상전체 의 축소모형 회귀계수	한국기업의 축소모형 회귀계수	미국기업의 축소모형 회귀계수	일본기업의 축소모형 회귀계수
상 수	-4.3706 (24.92)	-7.4083 (8.12)	-5.7698 (7.92)	-7.1001 (5.12)
해외자회사의수 (X1)	0.9097* (10.46)	2.4906* (3.78)	1.7010* (9.27)	3.8101* (6.65)
해외 판매량비 (X2)	0.0909* (1.14)			0.4146 * (2.19)
해외생산비 (X3)	-0.1789* (2.60)	0.2822** (0.47)	-0.1483*** (0.49)	-0.3340* (2.39)
총 자 본 금 (X4)		-0.9647* (0.95)		
총 매 출 액 (X5)	0.2582** (0.59)	1.7140* (2.09)	-0.9189* (1.18)	
해외 운영 연수 (X6)			0.3413** (0.91)	
정치 리스크 경험 (X7)	0.2046* (1.54)			
경영자의 인식 (X8)	0.8863* (3.57)	1.6178* (3.22)	1.6178*** (0.62)	
산업적 속성 (X9)	0.1464* (1.22)	0.4008* (0.83)	0.4008* (2.76)	-0.1884** (0.60)
Concordant	83.8%	83.8%	86.8%	89.93%

제 6 장 결 론

지금까지의 통계 분석의 결과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영향을 주는 기업 내적 특성 변수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전체 기업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의 수를 비롯한 해외 판매량 비율 해외 생산 비율 총매출액 정치 리스크 경험 경영자의 인식 및 산업적 속성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고, 이중 해외 생산비는 기업의 제도화에 부(minus)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기업에 있어서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유의한 변수는 해외 자회사 수를 비롯한 해외 생산 비율 총자본금 총매출액 경영자의 인식 및 산업적 속성이 주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 총자본금은 제도화에 부(minus)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미국 기업의 경우에는 제도화의 영향 변수로서 해외 자회사 수와 해외 생산 비율 총매출액 해외 운영 연수 경영자의 인식과 산업적 속성이므로 판명되었으며 이중에 해외 생산 비율과 총매출액은 부(minus)의 영향을 미친다.

넷째 일본 기업은 해외 자회사 수와 해외 판매량 비율 해외 생산 비율 및 산업적 속성이 제도화의 영향 변수로 평가되었으며 이중 해외 생산비와 산업적 속성은 제도화에 부(minus)의 영향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관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적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기업 국제화의 측정 대리 변수인 해외 자회사 수와 해외 생산 비율이고 산업적 속성에 따라서 제도화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의 기업은 산업적 속성과 경영자의 인식 및 기업의 규모 관련 변수가 기업 제도화를 위한 주요한 변수이나 일본 기업은 기업의 국제화에 관련된 변수가 제도화의 주요 변수이었다.

셋째 한국 기업과 미국 및 일본 기업의 차이는 외국의 기업이 국제화를 제도화에 중요 영향 요인으로 평가하는데 비하여 한국 기업은 규모를 주요 변수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 기업은 규모의 증대에 따라 조직의 확대 과정으로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의 제도화를 형성하는 대신 미국과 일본 기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기업 국제화의 증대에 따라 실제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의사 결정의 결과로서 정치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보다, 정치 리스크는 국민경제의 기여도나 산업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기술적 우위나 현지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경우 제도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1) Palich, Leslie Erwin, Diversification Strategy and Performance : The Impact of Product and Cultural Relatedness on Risk and Return, Arizona State University (a Doctoral Dissertation), 1992.
- 2) Lado, Augustine Abulu, Risk and Strategic Intent in Cross-Border Alliance Choic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Memphis State University, 1992, PhD.
- 3) Bussard, David Thomas, Risk, Performance, and Agendas (Cooperate Performan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91, PhD.
- 4) Collins, James Michel, Strategic Risk : An Ordinal Approach (Risk Measures, Diversific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PhD.
- 5) Kwon, Ku-Hyuk, Chance Constrained Programming Model and Other Approaches to Risk and Return in Strategic Management (Bowman Paradox),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1, PhD.
- 6) Walls, Michael Roy, Ex Ante Risk Propensity and Firm Performance: A Study of the Petroleum Exploration Industry (Risk Management, Exploration Risk),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2, PhD.
- 7) Lin, Lianlian, Risk Analysis of International Business With and Within China,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2, PhD.
- 8) Yen, Jonathan Tsung-Lieh, Political Risk Pertaining to Taiwan Private Foreign Active Direct Investment In Philippines, Thailand, and Malaysia (Private Firm),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1991, PhD.
- 9) Chung, Woo Chan, The Assesment of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 A Risk Perspective in Korea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88, PhD.
- 10) Makhija, Mona Verma, The Determina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 Political Risk in The Venezuelan Petroleum Industry,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89, PhD.
- 11) Loubani, Awad M., Optimum Risk Retention Level : An Empirical Study of Energy Companies Based In Albert University of Calgary (CANADA), 1991, PhD.
- 12) Sterreit Frank W., III, The Role of Equilibrium in Risk Management : Operational Decisions/Organizational Sucess, Boston University, 1992, DBA.
- 13) May, Robert Emmet, Diversification Decision - Making and Risk Management By High and Low Technology Executives (High Technology),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1990, PhD.
- 14) Burns, William J., Introducing Structural Models and Influence Diagram into Risk Perception Research: There Value for theory Construction and Decision-Making, University of Oregon, 1990, PhD.
- 15) Allende Vera, Baltasar, Political Risk Analysis : Som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Advance (Risk Analysi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90, PhD.
- 16) Berny, Jan, Forecasting and Risk Analysis Applied to Management Planning and Control, Astone University(England), 1988, PhD.
- 17) Stephan J. Kobrin, Managing Political Ris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18) Stephan J. Kobrin, Managing Political Ris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p.67.

- 19) Thompson, James D., *Organizations in Action*, McGraw-Hill, 1967. p.70.
- 20) Lawrence Paul and Jay W. Lorsch, op. cit., p.108.
- 21) Robinson, S.J.Q., R.E. Hichens and D.P.Wade op. cit., pp. 112-114
- 22) David Richardson,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Analysis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Western Economic Journal*, March 1971, pp. 87-98.
- 24) Barrie James, *Reducing the Risk of Glottalization*, *Long Rang Planning*, Vol.23, No1. 1990, pp.80-88.
- 25) I.H. Giddy & S. Young,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 Do New Form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Require New Theory ?*, Croom Helm, 1982, pp.55-75.
- 26) Carl R. Anderson, and Frank T. Paine, *Managerial Perceptions and Strategic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18, 1975, p.11.
- 27) J.Child, *Organization Structure, Environment and Performance*, *Sociology*, Vol.6, 1972, pp.1-22.
- 28) Stephen J. Kobrin, op. cit., pp. 73-74.
- 29) J. F. Truit, *Expropriation of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dian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1969, pp.229-239
- 30) Robock, S.and Simmond,K.,op.cit.,p.346-350
- 31) Franklin R. Root, *Environmental Risks and the Bargaining Power of Multinational Cooperations*, *International Trade Journal*, 1988, Vol13(1) pp.354-365.
- 32) Robock,Stefan H.and Simmonds Kenneth; *Internationa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 Homewood, III., R.D.Irwin Inc., 1983, p344*
- 33) Stopford, John M., Louis T. Wells, Jr., *Mnagi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Basic Books, 1982, pp. 128-179.
- 34) Stephen J. Kobrin, op. cit., pp.73-74.
- 35) Aldrich, Howard E,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s*, Prentice-Hall, 1979, pp.111-114.
- 36) Gai Bong Choi, op. cit., pp. 128-129.
- 37) Richardson, J. David, op. cit., pp. 204
- 38) G. Feder & J. Richard, *A Study of Debt Servicing Capacity Applying Logit Analysi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4, 1977. pp.25-37.
- 39) William R. Cline, *International Debt:Systemetic Risk and Policy Response*,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84.
- 40) Nakiye Boyacigiller, *The Role of Expatriates in the Management of the Interdependence, Complexity and Risk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Third Quarter 1990,
- 42)허명희, SAS범주형 데이터분석, 자유아카데미, 1991, pp.22-34.

김정열(金正烈) 정회원

- 1960년 8월 3일생
 - 경기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국제경영전공)
 - 경기대, 동덕여대, 인천대, 부천전문대 강사
 - Mckendree College Visting Resercher
 - 현. 오산전문대학 사무자동화과 전임강사
- 주요 논문 및 저서
- 국제기업의 정치리스크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의 다수